



## 포장전문가로서 포장산업 선도할 터

송웅국 / 용인송담대학 유통포장학부 1학년

“저에게 이렇게 큰 상을 허락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특히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교수님들과 1년동안 함께 수고한 동기들과 이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제9회 한용교포장인상 장학생 부문으로 용인송담대학 유통포장학부 1학년인 송웅국 씨가 수상했다. 일산에서 케이스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ACT에 근무하면서 용인송담대학 야간학부를 다니고 있는 송웅국 씨는 “영업을 하면서 경험에 의해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갱신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회사의 적극적인 지원아래 학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1학년을 보내면서 개인적으로 즐겁게 학업에 임했던 그는 한가지 아쉬운 점으로 충분한 실습시간이 이뤄지지 않은 면을 꼽았다. “시간이 부족해서 이론적인 배경을 현장에 사실적으로 적용하는데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다”는 그는 “방학을 활용하여 인턴십프로그램을 적극 도입, 운영하여 현실적



인 학습이 이루어짐으로써 취업에 있어 선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표했다.

송웅국 씨는 특수교육 교사인 약혼자의 영향으로 장애우들을 위한 UD(Universal Design)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는 “일상적인 생활의 환경들조차도 일반인들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포장분야도 많이 다르지 않기에 이 분야를 더 공부하여 장애우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포장업체에서 근무하면서 항상 블루오션 전략을 염두, 특화된 포장의 한 분야를 선도하는 꿈을 가지고 있다. 학교를 졸업한 후 4년제 대학의 편입은 물론 대학원에도 입학할 예정인 그는 포장에 대한 전문적인 공부를 통해 포장산업의 한 분야를 개척하는 인재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일과 학업을 통해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성공한 송웅국 씨. 포장전문가로 활약할 그의 행보가 기대 된다. ☐

이한얼 기자